인스나인은 디자인과 정성입니다.
INSNINE SINCE2001 인사이
http://ins9.koreasme.com

전남매일

행복이 함께하는 광주미래신협
본 점 062) 513-0220
동천지점 062) 515-0070

톡톡뉴스

"딸기 재배 휴경지에 상추 심으세요"

농촌진흥청은 딸기 수확이 끝난 여름철 딸기 재배 시설에 샐러드 상추를 재배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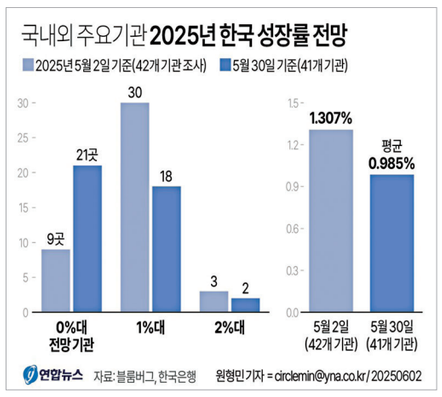
샐러드 상추는 시설 딸기를 재배하는 고설베드(높이 90~120㎝ 재배시설)를 활용해 쉽게 재배할 수 있다.

고설베드에서 샐러드 상추를 재배하면 서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밭에서 작업할 때보다 아주심기와 수확하기가 수월하다.

특히 포기째 수확하는 샐러드 상추 특성상 한 장씩 수확하는 잎상추보다 노동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기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은 "고온기 비어 있는 딸기 고설베드를 활용해 샐러드 상추를 생산하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경제



41개 기관 평균 올 성장률 0.985%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같은 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평균 1.307%와 비교해 0.322%포인트(p)나 낮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혼란 정국'에 식품값 줄줄이 인상…소비자 부담

주류·유제품·라면·과자·커피 등 6개월 새 가격인상 업체 60여 곳↑

올해 식품·외식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져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커피 판매대. 연합뉴스

식품·외식업계들이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탄핵·조기 대선 등 혼란한 정국 시기를 틈타 인상을 단행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식품·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가격을 올린 관련 업체는 60여 곳을 웃돈다.

소비자 체감이 컸던 품목은 믹스커피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 평균 8.9% 이어 지난달도 가격을 7.7% 인상했다. 불과 반 년 만에 두 차례나 올린 셈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 영향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 대로 내려갔다.

유제품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빙그레는 발효유 대표 제품인 요플레(4개입) 소비자가격을 3,780원에서 3,980원으로 5.3% 올렸다. 지난 3월 아이스크림과 커피, 과채음료 제품 가격을 먼저 인상했다가 2개월 만에 다른 제품까지 번졌다.

지난달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가공유와 발효유 등 54개 제품의 출고가 평균 인상률은 7.5%다. hy는 야쿠르트 라이트 가격을 220원에서 250원으로 13.6% 올렸다.

주류업계도 마찬가지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은 최근 각각 2.7%·2.9% 비싸졌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을 포함한 17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7.2% 상승시켰고 맥심 모카골드는 9% 인상했다.

제과업계도 함께했다. 오리온은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하고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6월에 이어 8개월 만인 올해 2월 또 올렸다. 특히 크런키 제품은 1년 새 41.7% 올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같이 짧은 기간 기업들의 고삐 풀린 듯한 가격 인상 릴레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의 가공식품 물가 관리 노력은 '관치'라는 볼멘소리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듯 했지만 정국 혼란 속 경쟁하듯이 인상 행렬을 펼쳤기 때문이다.

다만 농림식품부는 물가 상승이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60여 곳에 달하는 식품·외식업체들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불확실한 시기를 기회 삼아 기업들이 수익 확대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기업들은 각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가격 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국비 지원' 한옥 전문인력 양성 수강생 100명 모집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산업화·현대화를 위해 올해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으로 명지대와 전북대 등 3개소를 지정했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 과정,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으로 진행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내진설계 등 한옥 연구개발(R&D) 기술도 공유하며, 수료생 작품 전시와 작품집 발간도 이어진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한옥 시공 현장의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옥 시공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북대(한옥 설계 및 한옥 시공관리자)와 명지대(한옥 설계)는 7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14년간 총 1,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 수료 후 수료생의 한옥 관련 시공 관리 공사 수주나 설계 공모 당선과 같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국토부가 지원하며, 답사비 등 자기부담금은 30만원 가량이다. 이연수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